

다양한 가족에서의 청소년 발달

정 현 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청소년의 중요 발달환경인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가족구조에서의 경험이 청소년 발달과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모 및 가족환경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또한 개인, 가족 및 사회환경의 특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제 발달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앞으로 청소년 발달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발달, 다양한 가족, 가족환경

[†] 교신저자 : 정현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E-mail : hschung@smu.ac.kr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04년 Hall의 두 권의 저서로 출발된 청소년 연구의 역사는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로 꽃을 피웠다. 그 이후 사회학, 인구통계학, 가족학, 아동학 등의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최근에서 역사학, 보건학, 법학, 정책분야에서도 활발한 청소년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청소년 대상 연구주제를 분석한 Furstenberg(2001)는 20세기 초의 청소년관련 연구가 주로 청소년의 가족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동료관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사회경제적지위, 인종, 성의 다양성 등 개인차에 대한 강조와 함께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개인의 생리적 특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의 청소년연구가 청소년 개인의 특성, 가족, 학교, 동료, 혹은 이웃 등 한 가지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점차 한 연구에서 다양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족은 청소년 발달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에 대해서는 동서양 연구자들 간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가족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Cherlin(1999)과 Hernandez와 Myers(2003)와 같은 인구학자들은 지난 200년간의 역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족변화로 야기된 다양한 변화가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환경을 혁명적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한다. 특히 평균수명, 초혼연령, 여성취업의 증가를 포함한 인구학적인 변화와, 성역할과 결혼관의 변화로 야기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

는 가족관계와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서의 가족환경을 이전과는 매우 다른 패턴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가족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의 구조적, 기능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학교나 개인적 특성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내적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이 연구설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의 다양한 환경이 청소년발달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급격한 가족과 사회의 변화를 볼 때 청소년발달에 대한 기존의 연구관점은 변화되어야만 하며,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변인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환경에서의 청소년 경험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혁명(Giddens, 1999; Skolnick, 1991), 혹은 가족전쟁(Family War)(Glenn, 2002; Hay, 1996)으로까지 명명되는 최근의 가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가족환경의 변화가 청소년 연구관점과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족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거시적 측면의 경제체제 변화, 기술과 의학의 발달 및 성역할의 변화는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인구통계

학적 통계에 잘 나타나 있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발달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현대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환경인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청소년 발달에 관한 연구설계시 어떠한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현대사회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경제체제의 변화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로의 경제체제 변화는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회적 환경이다.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가족은 성원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는 자급자족적 생산 단위로서 기능하였으며,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가족은 경제적 자급자족의 기능을 상실하고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단위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에게는 가족부양 책임이,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부여되는 성별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초기 산업사회를 지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확대된 노동시장은 여성 노동인력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의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불황과 같은 상황들은 여성들, 특히 기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벌이부부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도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들은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권력을 지니게 되었고, 생활양식에 대한 선택의 폭도 이전보다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개인이 결혼과 가족생활 양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배우자선택 시 맞벌이가 선호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독신생활을 선택하며, 이혼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능력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을 꺼리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정현숙·유계숙·최연실, 2002). 그 결과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는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회적 환경이다. 정보화는 가족구성원간 관계변화(함인희, 1996)뿐만 아니라, 주부의 가사분담(조형, 1992), 가족내의 의사소통방식(김재은, 1997)을 변화시켰으며, 정보화로 인한 재택근무는 가족내 남녀간의 성별분업(이선이·최문경, 1997)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해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보화사회에서 가족관계는 가족원들과의 관계보다는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가족원의 개인화된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조정문, 1997). 그 결과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함께 가족관계 내에서는 개방성과 자율성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정서적이고 인격적 관계의 형성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형태의 동료애를 요구하며, 아동양육은 점차 덜 중요한 가족의 기능이 될 것이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기회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동료애를 찾기도 하고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학교, 기업, 정부는 과거에 가족에서 이루어지던 보건과 의료, 아동양육, 은퇴 후 보호, 실업수당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제공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한 건강에 대한 요구나 정서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지집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동호회, 독서토론모임, 음식탐방모임 등 가족 밖에서 비슷한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붐을 이룬다.

두 번째 가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환경은

기술과 의학의 발달이다. 기술과 의학의 발달 중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사건이 피임약의 개발이다. 피임약의 개발로 인해 임신여부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은 출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 피임약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혼전성관계가 증가하고,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가족수는 감소하였다. 가족수의 감소는 형제수의 변화를 의미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수의 감소는 자녀들의 형제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제는 연령, 욕구, 활동이 가장 비슷한 가족성원이며, 가족원 중 가족자원의 가장 큰 경쟁자이며, 가장 중요한 동료이다. 형제수가 많은 가족의 아동은 돌봄과 친밀한 동료애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가족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잠재적 동료애가 절대적으로 감소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 가족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 볼 때 5명이상의 형제가 있는 대가족에서 성장한 경우는 소가족의 아동보다 교육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고위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수의 감소는 교육, 좋은 직업과 경제적 성취의 기회가 더 많아 질수도 있다(Hernandez & Myers, 1993).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성역할의 변화로 이어진다.

새로운 기술발달은 자동화된 가사노동 보조제품, TV, VCR, DVD 등 여가생활제품, 그리고 컴퓨터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능하게 했다. 가사노동의 자동화로 인해 주부들의 여유시간이 증가하는 한편 가족의 안식처 기능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갈등 및 대립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정

현숙 외, 2003).

의학의 발달이 가족에 미친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는 유아사망률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2001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6.53세(여성 80.01세, 남성 72.84세)로서 수명연장은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가족의 생활주기에서 자녀출가 후 노부부만이 남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결국 노인부양의 문제가 대두된다. 노인의 주거형태 분석 결과 우리사회에서 자녀가 노부부를 부양하는 비율은 1998년 58.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가족을 구성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부모역할의 연장과 연결되며,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로 이어진다.

가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현상 중 하나가 성역할의 변화이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진출이 활발해짐과 더불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개되었던 여성운동은 남성 생계부양자로서, 그리고 여성은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의 전통적인 역할구분에 거센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비록 이념적이거나 남녀평등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서 오늘날 특히 여성들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예전과는 다른 역할을 기대 받는다.

일반적으로 남성 지배적 통제구조를 갖춘 전통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제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격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지배적 사회구조가 산업화라는 '경제적 혁신'과 맞부딪쳐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즉 여성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필연성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급증함으로써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

력은 과거보다 커지게 되었고, 이전의 고정화된 성역할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즉 여성들은 사회진출을 통해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남성적 역할을 경험하고, 남성 또한 가족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부양자로서의 남성역할과 가사 및 육아 담당자로서의 여성역할을 탈피하여 점차 상호 충족감을 줄 수 있는 통합된 성역할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남성들은 이처럼 변화하는 가치관에 혼란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성정체감의 혼란을 통하여 그들은 집안일도 분담하고, 아내의 경제적 원조를 거부하지도 않으며, 아내가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 자긍심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과거의 권위주의적 아버지상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양성적인 태도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다(정현숙·유계숙·최연실, 2002).

이러한 경제체제, 기술과 의학 발달 및 성역할의 변화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한국가족의 특징은 가족구조와 기능면에서의 다양성, 여성취업의 증가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변화로 나타난 한국가족의 특성 중 하나는 가족구조의 다양성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통계청(2001)의 가족형태와 가구수, 가구의 세대별 분포에 잘 나타나있다. 2000년 우리나라 세대별 가구는 1세대가 14.2%, 2세대가 60.8%로 1995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3세대가족은 8.2%로 1995년에 비해 7.1% 감소하였다(표 1 참조).

가족의 가족형태별 분포는 <표 2>와 같이 직계가족이 7.9%로 감소하며, 핵가족은 82%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핵가족 중 부부가족(14.8%)과 한 부모와 미혼자녀(9.4%)는 증가하고 있으며, 부부와 미혼자녀(57.8%)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여, 1975년 660만 가구에서 2000년에는 1,430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특히 1인가구는 15.5%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1975년 평균 5.1명이던 가구 수는 3.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표 1. 세대별 가구 구성 (단위: 천가구, %)

	1995년		2000년		증감(95~2000)	
	증	감	증	감	증	감
전 국	12,958	(100.0)	14,312	(100.0)	1,354	10.4
1세대가구	1,640	(12.7)	2,034	(14.2)	394	24.0
2세대가구	8,201	(63.3)	8,696	(60.8)	495	6.0
3세대가구	1,266	(9.8)	1,176	(8.2)	-90	-7.1
4세대이상가구	26	(0.2)	22	(0.2)	-4	-15.4
1인 가구	1,642	(12.7)	2,224	(15.5)	582	35.4
비혈연 가구	183	(1.4)	159	(1.1)	-24	-13.0

* 자료: 통계청(2001). 인구동태통계.

표 2. 가족형태별가구 (단위: 천가구, %)

	1995년		2000년		증감(95~2000)	
	증	감	증	감	증	감
계	11,133	(100.0)	11,928	(100.0)	795	7.1
· 핵가족	8,886	(79.8)	9,781	(82.0)	895	10.1
부부	1,399	(12.6)	1,765	(14.8)	366	26.2
부부+미혼자녀	6,528	(58.6)	6,892	(57.8)	364	5.6
편부모+미혼자녀	960	(8.6)	1,124	(9.4)	164	17.1
· 직계가족	1,001	(9.0)	1,870	(7.9)	869	17.1
부부+양친	22	(0.2)	24	(0.2)	2	8.9
부부+편친	99	(0.9)	113	(0.9)	14	14.1
부부+양친+자녀	173	(1.6)	168	(1.4)	-5	-2.9
부부+편친+자녀	707	(6.4)	642	(5.4)	-65	-9.2
· 기타	1,245	(11.2)	1,199	(10.1)	46	2.8

* 자료: 통계청(2001). 인구동태통계.

러한 통계는 우리 가족이 외형적으로 핵가족화하고 있으나 핵가족 내에서도 많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점차 증가하는 가족유형은 한부모가족이다. <표 3>과 같이 이혼당시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이혼가족은 전체의 69.7%로 이혼에 포함되는 자녀들은 점차 증가하고 그 결

과 한부모가족은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에서 1990년 7.8%로 감소하였다가 1995년 8.6%, 2000년 9.4%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1999년 전체 한부모가구의 7.1%에 해당되는데 이 중 81.6%는 여성한부모가구이며, 나머지 18.4%는 남성한부모가구이다. 이

표 3.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구성비(%) (단위: 천건, %)

	1993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 자녀있음	65.6	71.4	71.8	71.3	70.4	70.3	69.7
1명	30.0	32.9	31.7	32.0	31.7	31.2	30.0
2명	30.0	32.9	35.5	34.9	34.3	34.6	35.0
3명이상	5.6	5.6	4.6	4.4	4.4	4.5	4.7
○ 자녀없음	34.4	28.6	28.2	28.7	29.6	29.7	30.3

* 자료: 통계청(2003). 2002년 혼인·이혼통계.

러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두 번째 한국가족의 특징은 가족기능의 다양화이다.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가족이 사회의 가장 중심적이며 긍정적 제도라는 면에는 동의한다. 특히 대부분 문화에서 가족은 자녀를 사회화하고 양육하며 성적표현을 통제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이나 유럽사회에서는 부부간의 동료애를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국가에서는 자녀양육과 노인을 부양한다거나 병들거나 실업상태인 가족성원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지원체계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기능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생애과정이 점차 길어지고 있으며, 성에 대한 행동의 변화, 일과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변화 및 산업화현상은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변화 변화시키고 있다.

쾌락적 성에 대한 태도도 성행동과 임신간의 관련성이 줄어들며 따라 더 수용적으로 변했다.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한 성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가능해지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안전한 성을 즐기고자한다. 많은 가족기능이 다른 제도로 이관되면서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에 대한 기능은 상품을 이용하거나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보육의 문제도 국가, 기업, 개별가족의 책임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행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며, 청소년발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 번째 한국가족의 특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이다.

산업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확대되었고, 확대된 노동시장은 여성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49.7%에 달한다(중앙일보, 2003. 7. 3). 여성의 증가된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의 경제력은 가족 내 부부의 권력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 평등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가족원들도 전통적인 이분법적 성역할 개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맞벌이가족에서 부부들은 여성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가사 및 육아부담(남성의 38%, 여성의 42%; 한국여성개발원, 2001)을 지적한다. 그 결과 부모에 의한 양육이 감소되며, 비록 핵가족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조부모의 대리부모역할은 증가하고 있어 세대간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가정경제의 향상으로 연결되며, 산업화, 정보화사회에서 가족의 물질적 자원은 가족의 사회적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원이며 자녀들에게 필요한 자원의 변화를 의미함으로써 청소년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결과 교육열의 증가와 평균화된 고등교육기회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인 학업수준도 높아진다. 한편으로 맞벌이가족 부모들의 양육을 위한 시간적 제약, 일에서의 스트레스 및 죄책감 등이 부모역할의 중재변인 혹은 영향변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아버지직업의 불안정성, 아동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은 또 다른 가족의 긴장원이 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가족과 관련된 인구학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결혼율의 감소 및 만혼현상 등이 대표적인 결혼과 가족과 관련된 인구적 특성이다. 이와 함께 평균수명의 증가와 가정폭력 및 중독 등 가족문제의 증가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다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다양하게 분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가족구조는 기존의 핵가족, 확대가족뿐만 아니라, 무자녀가족, 미성년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분거가족(commute family), 이혼이나 사별, 미혼모(부)로 인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단독가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족이념을 변화시키며, 가족내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족관계 및 자녀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가족의 다양성은 청소년 발달환경인 가족환경의 다양화를 의미하지만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족에서의 가족,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가족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구조에서의 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변화된 가족관계적 측면도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족분야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관점의 변화 필요성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다양한 가족의 가족내적 역동성과 청소년 연구 방향

구조적, 기능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청소년 발달환경으로서의 가족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가족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의한 연구설계를 요구한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청소년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구관점과 가족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가족을 나름대로의 기능성을 가진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경제생활의 변화, 그리고 성역할의 변화는 오늘날의 가족생활양식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도플러는 앞으로 360여 가지의 가족형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가족을 보는 시각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두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만을 바람직한 가족으로 여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결손가정'이라고 보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여,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결손모델에 의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한 가족의 기준은 가족구성보다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재혼가족은 가족의 재구성을 통하여 손상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욕구의 표현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이라 할 수 있다(정현숙 외, 2000).

실제로 많은 청소년연구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전통적 핵가족과 두부모가족을 보편적 일반가족으로 인식하며, 구조가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결손모델을 적용하여 가족구조 자체를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이혼가족을 결손가족으로(예: 박명숙, 1996; 오승환, 2001), 일반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명명하여 이혼가족아동과 비교하여 연구(예: 이애경, 1994)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범죄의

80%가 부모가 있는 가족의 청소년범죄이며 약 20%가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이다. 그러나 이혼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경향을 분석한 제갈돈·황경준(1996)은 이혼수와 청소년 범죄간의 단순한 계열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이혼수와 청소년범죄건수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가 인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에서 여전히 이혼과 청소년 범죄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연구방법론과 연구결과 해석에서의 오류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이혼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며 가족구조가 청소년발달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게 된다. 실제로 이혼을 스테레스와 극복과정(divorce-stress-adjustment perspective)으로 인식하는 학자들(예, Amato, 1993; Kitson, 1992 등)은 이혼 전의 스트레스 여부에 상관없이 이혼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일시적인 스트레스원이기 때문에 개인 및 가족의 자원과, 이혼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 등의 보호적 요소가 있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노력을 강조한다. 맞벌이 가족과 홀벌이가족을 비교한 Muller(1995)의 연구도 가족구조보다는 다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Muller(1995)는 성인의 관리감독이 있느냐 없느냐가 학업성취에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방과 후 성인에 의한 안정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었던 홀벌이가족과 맞벌이가족의 청소년들 모두가 수학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단순한 구조적 분석과 비교는 경계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 가족구조 하에서도 가족 관련변수의 변산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양한 가족의 독특한 변인들

을 포함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의 경제체제와 성역할 변화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는 맞벌이가족의 예를 들어보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 현재 49%(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이며,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맞벌이가족은 보편적 가족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맞벌이가족부부들은 직업인, 남편과 아내, 부모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다양한 역할수행은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향상과 역할에 대한 협상력 증가 및 사회적 도전과 사회적 관계 기회를 높이는 등이 보상으로 작용하여, 맞벌이가족의 부부들을 더욱 활력있게 한다(Barnett, 1999). 특히 지지적인 결혼생활은 일에서의 부정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Repetti, 1998), 개인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다양한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Voydanoff & Donnelly, 1999). 이런 연구결과를 볼 때 맞벌이가족의 부모역할을 연구할 때는 이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부모역할을 함께 고려하여야만 이들의 양육행동과 이러한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Marks와 MacDermid(1996)는 다양한 역할모델에 관한 연구들이 전체와 분리된 일부, 혹은 특정 역할만을 이용하여 전체 역할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균형있게 검토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역할수행과 역할에 대한 책임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부족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맞벌이가족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 사회인, 부부의 역할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모역할은 매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맞벌이가족의 다양한 역할수행뿐만 아니라 맞

별이가족의 경제상황이나,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수행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수행도 같은 맞벌이가족 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노동계층 맞벌이가족 부부들은 부모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행하는 부모역할의 정도는 변산도가 매우 크다 (Perry-Jenkins, Pierce, Halet & Goldberg, 1999). 이들 연구대상 중 50%의 남성은 월급을 가져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역할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역할모델이 되는 것, 양육, 시간함께 보내기 등을 그 다음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Simon (1997)은 부모역할에 대한 손해와 비용에 대한 인식에 남녀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남녀간 역할에 대한 다른 의미가 남녀의 긴장원의 차이로 나타나며, 이러한 긴장이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같은 빈곤가족이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는 부모역할수행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Harris와 Marmer(1996)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청소년들의 부정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한편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Amato & Rivera, 1999)도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역할 수행을 보여 준다.

다양한 가족변인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중 하나는 가족구조가 두부모가족인가 여부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정도는 학기 중 청소년의 시험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름방학 중 청소년의 성취에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Entwisle & Alexander, 1995). 지금까지 맞벌이가족 연구에서 어머니의 일하는 시간과 청소년의 적응(Armistead, Wierson, & forehand, 1990), 부모-자녀관계(Paulson, Koman, & Hill, 1990), 학업성취(Muller, 1995)간에는 일관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다. 그러나 맞벌이가족의 계층,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역할수행 및 중재변인 등을 함께 고려하면 부모역할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른 연구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가족구조 내에서도 가족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빈곤가족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도 빈곤가족내의 경제적 자원의 양과 빈곤기간 등 빈곤가족내의 변산을 고려한 연구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빈곤가족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의 자녀들보다 사회·정서적, 행동적으로 더 문제가 많다고 알려져 왔으며, 실제로 우울증과 사회적 박탈감, 동료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행동장애와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를 나타낸다(Conger et al., 1993). 그러나 Gerhard와 Buehler(1999)는 빈곤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가족환경에서의 교육의 질, 학업 어려움, 증가하는 문제행동들이 상호연결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빈곤가정은 컴퓨터, 책 등 교육 자료를 살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러한 경제적 결손이 학업적성취와 관련되어 학교에서 정서적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증가 혹은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의 빈곤기간도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McLeod와 Shanahan(1996)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의 빈곤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의 문제가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장기적 빈곤에 시달린 아동이 단기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족의 아동보다 우울증이 높아, 빈곤의 실제기간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1) 특정가족구조에서의 부모행동과 이러한 부모행동의 영향력은 가족구조에 따라 변산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어떤 특정집단, 계층, 성, 직업, 가족구조에 대한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적 역할 등 구체적인 부모의 행동, 가족상황, 가족구조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른 가족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생태학적인 연구관점이 요구된다. 즉,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에서 청소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가족학분야의 개관(review)연구들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함께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 및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강조한다(Milardo, 2001). 개인 특성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Dunn과 Plomin (1991)은 아동과 청소년의 기질이 가족환경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이나 가족 밖의 세상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인 영향이 청소년기 동안의 사회적 행동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유전과 환경에 대한 양극단의 견해들을 보여준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유전의 영향력에 대한 가장 극단의 결론은 행동유전학자인 Harris(1998)의 연구이다. Harris는 아동의 성격과 행동의 다양성의 50%는 유전에 의한 영향이며, 나머지 50%는 동료집단

에 의한 영향이며 부모의 역할은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행동유전학분야의 유전적인 관련성(genetic relatedness)에 대한 쌍생아 연구를 통해 지지된다(Plomin, Defries, and McClearn, 1990). 이들 연구의 일반적인 설계는 일란성쌍생아를 이란성쌍생아와 비교하는 것으로 일란성은 일반적으로 100% 유전인자가 동일한 반면, 이란성은 대부분 형제들처럼 50%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일란성쌍생아의 성격이나 행동이 이란성쌍생아들보다 비슷하다면 그것은 유전적인 유사성이거나 혹은 그들의 환경과 유전적 경향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논리를 이용하여 행동유전학자인 McGue와 Lykken(1992)은 동성의 1,516쌍의 결혼한 성인 쌍둥이집단 연구를 통해 이란성쌍생아의 이혼가능성은 그의 쌍둥이 형제가 이혼한 경우 2배가 높으나, 일란성쌍생아의 경우 6배나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Harris(1998)는 아동기 때의 경험이 아니라, 유전이 이혼가족 아동이 자신의 결혼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며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견해와는 달리 Kendler와 동료들(1992)은 유전적 유사성의 정도를 통제하고도 일란성과 이란성쌍생아의 이혼이 우울증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는 쌍둥이들의 유전적 유사성을 고려하고도, 중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위험을 42%나 증가시켰다. 이결과는 유전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혼자체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비록 Harris(1998)가 유전과 동료관계를 중요한 영향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모의 영향력도 중요하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Tucker, Marx와 Long(1998)는 잦은 이사와 학교에서의 학습 및 행동문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두부모와 살

지 않는 아이들 중 여러 번 이사한 가족이 자주 이사하지 않은 가족의 아이들보다 학교에서 낮은 성취를 나타내는 반면, 두부모와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주 이사한 가족의 아동들을 자주 이사하지 않은 가족의 자녀와 비교할 때 학교에서의 성취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생물학적인 두 부모의 존재가 잦은 이사에서의 어려움인 새로운 동료집단을 찾거나, 새로운 학교에서의 적응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부모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Cherlin, Chase-Lansdale과 Battler(1998)는 현재의 가족구조보다는 가족구조가 변화되기 이전의 상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들은 1958년 출생한 11,759명의 영국아동을 1991년까지 33년간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모두 7세까지는 두부모 밑에서 성장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이 7, 11, 16, 23, 33세 때 이들의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였다. 부모의 이혼후 경험한 정서적 어려움 점수를 growth-curve modeling 을 써서 분석한 결과, 7세 이후에 이혼한 부모들의 자녀들도 7세에 이미 정서적인 문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혼가족 아동과 이혼하지 않은 가족 아동의 정서적 문제의 차이가 이혼 전에 이미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이후의 아동적응의 문제는 이혼이 원인이 아니라 이혼전 아동의 정서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herlin(1999)은 이혼 전에 이미 존재하는 가족과 아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를 통해 한부모가족에서 성장하는 것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Cherlin과 동료들(1998)의 연구와 Harris(1998)의 연구를 함께 비교해 보면 이혼 후에 나타나는 아동문제는 유전적인 원인일 수도 있으며, 유전적 선제성과 환경의 영향이 상호작용하여 나타

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결과는 양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혼가족의 이혼전후의 환경적 변이와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연구설계에 의한 연구결과는 그 해석의 일반화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Chase-Lansdale, Cherlin과 Kiernan(1995)의 연구는 환경적 변이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해석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Cherlin과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와 같은 연구대상을 이용하여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의 23세 여아의 정신건강도를 사회계층과 아동기의 행동 문제를 통제하고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비이혼집단의 13.7%와 이혼집단의 18%가 임상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수치에서 볼 때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의 정신건강문제의 위험도를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혼을 경험한 대다수의 아이들, 즉 82%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혼에 의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82%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혼집단과 아닌 집단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이혼의 역기능적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거시환경의 통합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있다. 생태학적인 접근은 가족환경을 넘어서는 이웃이나 학교, 동료집단 등의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Seccombe(2001)는 빈곤가족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빈곤의 원인도 개인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환경과 거시환경의 통합을 시도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인지적 경향성, 가족의 배경, 약물남용, 가정폭력 등 가족내적 요인들이

지적되었다.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빈곤이 개인적 요인(동기, 성격, 인지능력, 개인의 자원수준 등)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의 사회적 환경(자본주의, 인종주의, 성차별)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행동은 사회내의 더 큰 구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South와 Crowder (1999)는 청소년이 사는 지역상황, 예를 들면 경제적인 박탈상황은 이른 시기의 혼전임신률과 낮은 초혼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배우자 선택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 및 지역사회의 취업률도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사회, 개인 특성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가족과 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혹은 한 특정 영역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느 한부분이 아동이나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개인, 가족, 사회의 다양한 환경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가족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경험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생태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져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사회, 가족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가치관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로 인한 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서의 변화된 가족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가족역동의 변산도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청소년 연구관점과 연구방향을 살펴보았다.

가족의 혁명(Giddens, 1999; Skolnick, 1991), 혹은 가족전쟁(Glenn, 2002; Hay, 1996)으로 명명되는 사회변화는 가족구조의 다양성과, 가족기능의 다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와 이로 인한 가정경제의 변화로 요약된다. 즉, 가족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가족크기가 작아지며 가족구조가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이혼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맞벌이가족,分居가족, 미성년자들로 구성된 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폭력가족, 장애아가족, 빈곤가족, 중독부모가족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정현숙 외, 2003). 이와 같은 한국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다양성은 가족 안에서의 개인경험의 차이를 증가시킨다. 가족의 다양성은 청소년 발달환경으로서 가족환경의 다양화를 의미하지만 다양한 가족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가족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구조에서의 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변화된 가족관계도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연구에서 1) 다양한 가족을 보는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과, 2) 동일 가족구조 하에서도 가족 관련변수의 변산도를 고려해야하는 이유와, 다양한 가족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설계가 필요한 이유 및, 3) 청소년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생태학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를 가족학 분야의 연

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앞으로 청소년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에 특히 중요한 몇 가지 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왜 다양한 가족의 가족환경에 관심을 가져야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미혼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폭력가족, 장애우가족, 실직자가족, 중독자를 둔 가족, 미성년자들로만 이루어진 가족 등 구조와 기능면에서 다양한 많은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 환경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내의 부모역할은 평등적인 역할수행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두 부모를 모두 포함한 연구설계를 통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역할내용 및 역할수행을 검토하여야 하며, 맞벌이부모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부모역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학자들은 앞으로 가장 증가할 가족 유형으로 맞벌이가족과 한부모가족을 지적한다. 이들 가족의 다양한 변산을 고려한 청소년연구를 통해 미래의 가족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가족에서의 조부모역할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속성을 가진 역동적 실체이다.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인간의 생애주기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 장기적인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종단연구는 청소년의 발달이 가족, 사회,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생태학적인 관

점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특성 및 가족환경을 함께 포함하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은 (1997). 정보화와 가족내 권위구조.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박명숙 (1996).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교육에 관한 고찰-이혼 가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2, 283-310.

오승환 (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 이혼·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 99-125.

이선이·최문경 (1997). 재택근무와 가족생활.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제갈돈·황경준 (1996). 이혼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분석.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논총, 8, 133-156.

정현숙·유계숙·최연실 (2002). 결혼학. 서울: 신정.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 (2000). 재혼가족의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20.

정현숙·정영화·천혜정·양성은·조은희 (2003). 가족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안) 마련. 여성부.

조정문 (1997). 정보사회에서의 가족 및 세대 공동체. 사회조사연구, 12(1), 45-70.

조형 (1992). 정보사회와 여성의 일 - 가정 정보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통계청 (2001). 인구동태통계보고서.

통계청(2002). 2001년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 (2003). 2002년 혼인·이혼통계결과.
- 한국여성개발원 (2001). 2000년 여성통계연보.
- 함인희 (1996). 정보화 사회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95-22. 이화여자대학교.
- Amato, P., & Rivera, F. (1999). Parent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1, 375-384.
- Armistead, L., Wierson, M., & Forehand, R. (1990). Adolescent and maternal employ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0, 260-278.
- Barnett, R. C. (1999). A new work-life model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2, 143-158.
- Chase-Lansdale, P., Cherlin, A., & Kiernan, K. (1995).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6, 1614-34.
- Cherlin, A. (1999). Going to extremes: Family structure, children's well-being and social science. *Demography*, 36(4), 421-428.
- Cherlin, A., Chase-Lansdale, P., & McRae, C. (1998).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mental health throughout the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239-49.
- Dunn, J., & Plomin, R. (1991). Why are siblings so different?. *Family Process*, 30, 271-283.
- Entwisle, D., & Alexander, K. (1995). A parent economic shadow.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7, 399-409.
- Furstenberg, F. (2001). The sociology of adolescent and youth in the 1990s: A critical commentary. In R. Milardo(Ed.), *Understanding families into the new millenium: A decade in review*(pp. 115-129). NCFR.
- Gerhard, J. M., & Buehler, C. (1999).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43-361.
- Giddens, A. (1999).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Taylor & Francis, Inc./Routledge, Inc.
- Glenn, N. (2001). Social science findings and the family wars. *Society*, 38(4), 13-22.
- Harris, J. (1998). *The na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NY: Free Press.
- Harris, K., & Marmer, J. (1996). Poverty, paternal involvement,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 614-640.
- Hays, S. (1996).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 Hernandez, D., & Myers, R. (2003). Revolutions in children's lives. In A. Skolnick & J.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pp. 263-283). Boston: Allyn & Bacon Pub.
- Kendler, K., Neale, M., Kessler, R., Heath, A., & Eaves, J. (1992). Childhood parental loss and adult psychopathology in women: A twin study perspectiv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109-16.
- Kitson, G. (1992). *Portrait of divorce: Adjustment to marital breakdown*. NY: Guilford Press.
- Marks, S. R., & MacDermid, S. M. (1996). Multiple roles and the self: A theory of role bal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417-432.
- McGue, M., & Lykken, D. (1992). Genetic influence on risk of divorce. *Psychological Science*, 3, 368-73.

- McLeod, J., & Shanajan, M.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 Milardo, R.(Ed.)(2000). *Understanding families into the new millenium: A decade review*. NCFR.
- Muller, C. (1995). Maternal employment, parent involvement,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7, 85-100.
- Paulson, S., Koman, J., & Hill, J. (1990). Maternal employ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families of seventh grader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0, 279-295.
- Perry-Jenkins, M., Pierce, C., Haley, H., & Goldberg, A. (1999, November). *Creating role salience and balanc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meaning of multiple rol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Irvine, CA.
- Plomin, R., Defries, J., & McClearn, G. (1990). *Behavioral genetics: A primer*(2nd ed.) NY: Freeman.
- Repetti, R. L. (1998). The promise of a multiple roles paradigm for women's health research. *Women's Health: Research on Gender Behavior and Policy*, 4, 273-280.
- Seccombe, K. (2001). Families in poverty in the 1990s: Trends, causes, consequences, and lesson learned. In R. Milardo(Ed.), *Understanding families into the new millenium: A decade in review*(pp. 313-332). NCFR.
- Skolnick, A. (2003). Life course revolution.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 (pp. 23-30). Boston: Allyn & Bacon Pub.
- South, S., & Crowder, K. (1999). Neighborhood effects on family form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113-132.
- Tucker, C., Marx, J., & Long, L. (1998). Moving on: Residential mobility and children's school lives. *Sociology of Education*, 71, 111-29.
- Voydanoff, P., & Donnelly, B. (1999).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intersection of the paid worker, spouse, and parent role with the role of the adul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725-735.

1 차원고접수일 : 2003. 8. 21

최종원고접수일 : 2004. 3. 19

Adolescent development in diverse families

Chung, Hyunsook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To understand changing adolescent developmental environmen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a) social factors influencing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 and b) outcomes of these changes. Also based on recent research findings of diverse families, this paper presented how individual, famili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re related each other to adolescent development. Based on literature review, new research directions and research issues a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development, diverse families, family environment